

數 學 術 語 에 關 하 여

金柱鳳

우리 일선 교사가 교단에서 피로웠던 사실 중의 한 가지를 듣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술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참고서적은 물론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서로 다른 술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를 접할 때마다 새로운 술어를 익히지 않으면 안되었다. 물론 몇 가지 술어를 동시에 혼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혼란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가 문제였다. 그런데 이번 새 교과과정이 발표되고 여기에 명시된 술어가 곧 새로 나올 교과서의 수학술어로 사용된다고 하니 술어 통일을 바라던 일선교사로서, 반가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물론 그 우열은 차차로 가려 지겠지만 여기서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게 된다.

새로운 것은 과거엔 小數와 素數를 혼돈하기 쉬웠는데 새 과정에서는 『素數』를 “외톨수”, 代數와 對數의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對數』를 “로그”로 한 것이 특색이다.

다음에 “平行”과 “나란히”를 혼용하던 것을 “평행”으로, “——計算”과 “——셈”을 “——셈”으로 정하고, “對稱”과 “맞섬”을 “대칭”으로 정하였다. 그외에도 “零”과 “공”을 “영”으로, “球”와 “공”을 “구”로, “회전”과 “돌림”을 “회전” 등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면 우리 중, 고등학교에서 많이 사용되며 과거에 혼용했던 술어 중 발표된 교과과정에서 추려 표를 만들면 대개 다음과 같다.

(京畿工高)

종	래	어	국	어	종	래	어	국	어	종	래	어	국	어	차
横		가	로	比	공	비	顺	내	립	각	래	국	리	기	순
假	設	가	설	差	공	차	心	내	림	각	면	어	내	자	심
簡	算	편	셈	總	공	선	大	늘	자	면	은	차	다	자	립
便	便	값	값	數	통	수	柱	다	분	분	대	차	다	분	동
值	值	제	제	角	내	각	錐	다	그	분	로	표	다	그	뿔
霧	霧	根	근	接	통	인	角	닮	위	分	대	원	다	위	각
表	表	積	적	因	共	통	形	닮	하	數	단	기	다	하	꼴
見	見	圖	구	數	共	共	似	다	임	表	더	원	다	하	음
終	終	結	결	球	頂	接	似	값	행	應	더	기	다	하	름
傍	傍	心	결	極	球	因	似	값	머	圓	더	수	다	하	름
曲	曲	圓	결	極	極	數	似	호	행	數	더	법	다	하	법
線	線	根	속	近	近	根	似	항	머	圓	더	법	다	하	법
乘	乘	根	제	根	末	勾	基	기	행	數	더	법	다	하	법
乘	乘	(算)	제	末	期	期	既	기	행	圓	더	법	다	하	법
乘	乘	數	급	基	基	數	夾	수	행	數	더	법	다	하	법
被	被	法	급	既	既	數	平	점	행	圓	더	법	다	하	법
頂	頂	積	급	夾	夾	數	剩	수	행	數	더	법	다	하	법
公	公	乘	급	平	平	母	俯	모	행	圓	더	법	다	하	법
公	公	乘	급	地	地	母	地	모	행	圓	더	법	다	하	법
公	公	乘	급	地	地	母	地	모	행	圓	더	법	다	하	법

